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㉞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6) - 전좌(典座)와 직세(直歲)

### 밥 주걱과 나무 망치에 담은 공심(公心)

6지사의 하나인 전좌(典座)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할 음식·반찬 등을 만드는 직책으로 오늘날 주방장과 같은 소임이다.

본래는 대중의 상좌(床座)인 침상, 포단(좌구), 와구(飯具·침구) 등의 관리와 음식(飲食)을 맡았던 소임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공양을 중요시했던 선종사원(宗院)에서는 음식만 전담하게 됐고, 주방의 일을 총괄·감독한다.

율장의 하나인 (사부율)에는 “부처님이 기사굴산에 계시실 때, 탐파라라자 비구가 대중 가운데 뿔혀서 못 수행자들의 상좌(床座)와 와구(飯具), 그리고 음식 본배를 맡았다(典衆僧床座, 臥具乃分飲食)”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좌에 대해서는 <승사략>과 <조정사원>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승기률>에는 관련 업무에 대해 침상, 좌구, 와구, 방사(房舍), 의복(衣服) 등 아홉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전좌의 화두는 깨달음 밑바탕 되는 공양

전좌를 우리나라 사찰 소임과 비교하면 원주(院主)를 보좌하는 별좌(別座)와 같은 소임이다. 그러나 <선원청규> 등 청규서에는 “별좌”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추정된다.

전좌를 공양주(供養主)·공두(供頭)·반두(飯頭)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설명도 아니다. 공양주·공두·반두는 모두 밥 짓는 소임으로 채공(菜供·채두), 갠두(羹頭·국 끓이는 소임), 미두(米頭) 등과 함께 전좌 밑에 있는 소직(小職)이다. 그 밑에는 공두를 돕는 공두행자(供頭行者) 등 여러 행자들이 있다.

전좌는 상주하고 있는 대중과 신도, 외부 손님 등을 고려해 쌀과 반찬 등 식자재를 꺼내 왔다. 매일 짜여진 고정 식단이 있고 수시로 새로운 식단과 특별 음식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공양했다. 부엌살림을 총괄하려면 무엇보다도 오랜 경력이 있고 인내와 이해심이 많아야하기 때문에 주로 전좌직은 나이 많은 이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전좌의 화두는 무슨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야 대중들이 맛있게 공양하고 그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밑바탕이 될까하는 것이었다.

#### 음식 장만을 선수행의 일환으로 생각

일본 조동종의 개창자인 영평도겐(永平道元: 1200~1253)이 <전좌교훈>에 쓴 송(宋) 유학기를 보면 노(老) 전좌 스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도겐 나이 24세인 1223년 초봄, 그는 선불교를 배우기 위해 본 고장인 송(宋)으로 가는 상선(商船)에 몸을 싣는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겐이 타고 있던 배에

아육왕사 전좌 스님(61세)이 올라왔다. 스님이 40여 리를 걸어서 영파항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 상선(商船)을 찾은 것은 뿔나무 오디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대중들에게 특별히 국수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마침 국수 국물을 내는 뿔나무 오디(달린 오디)가 그 일대에서는 품질됐던 것이다.

도겐은 전좌 스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일찍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내일 대중들이 공양할 국수는 자신이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내 나이가 61세로서 전좌직을 맡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전좌의 일은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소”라고 밝혔다.

도겐이 다시 “번거롭게 전좌직을 맡아서 일만한다면 무슨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전좌 스님은 “일본의 젊은 스님, 그대는 아직 판도(辦道·선 공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군”하며 자리를 뒀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 대체로 반찬 등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는데, 이 노(老) 전좌들은 반찬 만들고 음식 장만하는 일을 노년의 선 수행, 곧 판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겐이 지은 <영평청규>에는 특별히 전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이 ‘전좌교훈’인데, 여타 청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도겐은 전좌가 무엇보다 청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주의로 음식물이 상하거나 세균에 오염됐을 경우 만든 음식을 모두 버리게 되고, 만일 대중들이 먹고 배탈이라도 난다면 수행하는 대중들이 고통을 받고 자칫하면 동사(화장실)가 범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대중을 위한 진심 가장 중요

<선원청규> 3권 전좌장에는 “전좌직은 대중의 재족(齋粥·밥과 죽)을 맡은 소임이다. 모름지기 도심을 움직여 때에 맞게 음식을 바꿔 대중들이 안락함을 수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료(齋料)를 낭비하지 말라. 주방을 점검해 깨끗이 하라. (...) 음식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직접 살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음식의 가지 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고사(庫司·감원)나 지사(知事·감원)와 상의하라. 장(醬)과 말린 나물 등은 모두 전좌가 관장하고 그 때를 잃지 말라. (...) 주방에 술이나 기름이 오래도록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 때마다 교환, 보충하라”고 이르고 있다.

또한 “행자를 시켜서 공양물을 승당(또는 중료)으로 보낼 때는 모름지기 하나하나 지도하되 분명하게 알게 하라. (...) 전좌는 주방에서 공양할 때 대중이 먹는 것과 달리하지 말라. 재(齋·밥)와 죽(粥)이 준

# 음식 공양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매진

## 전좌, 대중공양 중시한 선원총림 음식 전담 직세는 도량과 당우 관리에 울력 동원 권한



해인사 공양간에서 스님들이 공양 후 설거지를 하고 있다.

비되던 먼저 승당을 향해 분향 예배한 다음 음식물을 보내야 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전좌는 주방에서 공양할 때 대중이 먹는 것과 달리하지 말라”는 말은 주방을 담당하고 있다고 혼자 좋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齋·밥)와 죽(粥)이 준비되면 먼저 승당을 향해 분향 예배한 다음 보내야 한다”는 말은 전좌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서 참으로 향기 나는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대중들을 봉양한다면 좌선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수행은 그것으로서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에는 “전좌 소임은 진심으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적임자가 없을 때에 승당의 전당수좌와 상의해 대중을 잘 봉양할 수 있는 자로 뽑아야 한다. 만(萬)에 하나라도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당말의 선승 설봉 의존(822~908) 화상은 가는 곳마다 전좌 소임을 전담했다. 그는 행각할 때 항상 쌀이 는 조리와 밥 푸는 주걱을 가지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전좌 소임을 맡았다고 한다. (雪峰, 擔糲籬木杓行脚, 到處作典座. 출처: 원오의 <불교역사학>) 향

상 자기 손에 익숙한 조리와 주걱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방장 소임을 자임한 것이다. 그가 중국 선종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도 이 조리(籬籠)와 주걱 때문이었다. 조리와 주걱 속에서 조사(祖師)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다.

주방의 정식 명칭은 고원(庫院)이다. 또 주고(廚庫), 고리(庫裡), 고당(庫堂), 향적실(香積室), 향적당(香積堂)이라고도 한다. 향적당은 향기가 가득 쌓여 있는 음식이라는 말로서 대승경전인 <유마경> 향적품에 나오는 말이다. 고원은 주방과 식자재 창고(쌀과 식품 등)가 붙어 있는 건물로서 매우 크다. 산문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수 시설이 매우 좋아야 한다.

#### 도량과 당우 관리는 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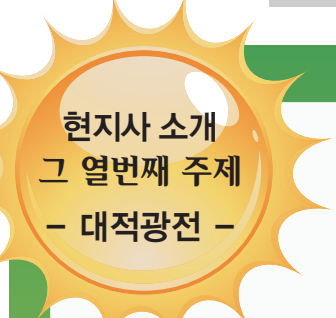
직세는 6지사의 하나로 도량과 당우(건물)의 보수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선원청규> 직세장에는 “직세직은 무릇 선원과 관련된 작무(作務·보청, 울력)는 모두 직세가 맡는다. 직세의 직무는 요사(寮舍), 창문, 담장 등 당우 수리(修理)를 담당한다. 그리고 방앗간(정미소), 유방(油坊·기름 짜는 건물), 농막, 마굿간, 전원(田園), 선기(船車) 등을 관리하며 산림(山林)을 보호하고 도적을 방호(防護)한다. (...) 모름지

기 공심(公心)으로 일을 하되 때를 알고 옳은 바를 분별해야 한다. 만일 큰 공사(工事)나 큰 울력이 있을 때에는 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직세의 업무 영역과 주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은 직세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직무상 감원이나 도사(都寺) 등이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직세가 갖고 있다는 것은 의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량과 당우의 보수 및 관리 담당인 직세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울력해야 할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임자가 직세였기 때문이다.

또 직세의 직무가 도량이나 당우만이 아니라 총림 소유의 산림(山林)까지 관리했다. 산림 간수(看守)까지 겸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원주가 울력 동원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세(直歲)라고 말은 ‘한 해(歲)를 맡는 다(直)’는 뜻으로 본래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맡았기 때문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changhwa9@hanmail.net



## 그 누가 알리오? 그 어느 성자가 불(佛)의 三身(열반경의 伊字.:點)을 알것인가? 석가모니부처님 이후 가섭과 아난, 수보리, 사리불 외 청정법신을 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法身)을 말합니다.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들의 소의처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 온 법계와 완전한 결합을 이룬 우주적 무형의 무량억총광입니다. 그 비로자나불의 광명은 시방법계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까지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적광전(大寂光殿)은 이러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전각입니다. 현지사의 대적광전 역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곳이지만 여기에는 여타의 대적광전과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에 의해 점안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 ◆ **깨우친 그 자리(空·마음·자성광)는 청정법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자리, 즉 공(空)·자성광의 세계는 아라한(阿羅漢)의 수준으로 부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영역입니다. 마음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아라한(阿羅漢)의 수준으로는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니르바나(Nirvana)의 세계인 정도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삼신(三身), 특히 청정법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무량억총광으로 이루어진 청정법신은 부처의 영역으로, 청정법신이 머무는 상적광세계는 부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 ◆ **법계의 가장 깊은 심연의 영역, 청정법신의 상적광세계**  
수행자의 공부가 깊어지면 천안(天眼)이 열리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세계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세계에도 주(住)하지 않고 일념정진하면 공(空)의 자성광을 만나게 되니 이를 중독한 이를 아라한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팔정도 청정법신을 통해 부처님 가피에 힘입어 더 깊이 수행해 나아가면 보살의 영역인 극락정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도에서도 한참을 지나서 도달하게 되는 무량광의 세계를 상적광세계라고 합니다.
- ◆ **불과를 이룬 대성자가 점안한 세계 유일의 성지**  
우주적 존재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대적광전에 점안하기 위해서는 점안의 주체가 부처의 영역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처의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통과하여 상적광세계에 자신의 법신을 둘 수 있어야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 있습니다.

- ◆ **그렇기에 사바세계의 수많은 대적광전 중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점안된 곳은 오직 이곳 현지사의 대적광전 뿐입니다.** 부처님의 두 상수제자가섭과 아난이 이 땅에 다시 몸을 받아와 불과를 이룬, 겁에 한번 있을 뿐 다희상이기 때문입니다.
- ◆ **우주적 위신력을 이땅에 놓으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현신하실 때면 우주 온 법계의 모든 보신 부처님이 석가모니부처님의 청정법신으로 들게 됩니다. 이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외에 법계에는 어떤 보신의 부처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주 자체의 대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 그 자체가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한정이 없습니다. 못이룰 것이 없기에 우주의 이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중생들을 위해 한량없는 가피를 주시게 됩니다.
- ◆ **매일 음력 1일, 청정법신이 현신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순간**  
매일 음력 1일은 현지사 재일로 가섭과 아난, 두 상수제자의 원력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 현신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우주적인 능력을 지니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전 인류적인 혹은 온 우주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적 자리에 참석할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심심있는 불자들이라면 겁에 한번 있을 무한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부처회상의 재일에 참석하여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제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족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유훈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은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 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 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제입니다.